모듈러 건축·주택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전략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신성장전략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모듈러(Modular), PC(Precast Concrete), 프리패브(Prefabricated) 등의 탈현장 건축공법(OSC: Off-Site Construction)은 기존의 현장타설 의존적인 시공방식에서 탈피해 표준화, 유닛화 된 모듈 및 입체부재를 공장에서 생산·제작하고 현장으로 운반 후 건축물을 조립·완공하는 방식으로 공기단축 및 품질 확보, 안전사고 감소,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절감 및 탄소배출 감소를 비롯해 종합적인 생산성 향상 등 매우 많은 장점을 갖추고 있어, 최근 주택과 건축물의 적용에 산업적·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모듈러 건축·주택산업에 대한 관심 증대와 시장의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기존 현장생산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모듈러 공법과 같은 진보적 기술의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내 모듈러 산업의 특성에 적합한 제도적 환경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최근 "국회 모듈러건설 포럼" 발족, 주택법 개정안 발의(서범수 의원('24.7), 허영 의원('24.9), 한정애 의원('25.1), 한준호 의원('25.6)), 국토부의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3~'27) 상의 생산시스템 자동화/모듈화 추진과제 반영 및 특별법 제정 추진, 공기업(LH, SH, GH, IH)의 모듈러주택 선도사업 추진(LH 연간 5,000호 건립 목표 등), 기술 표준화(표준평면 마련 등),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개발 등 다양한 제도개선 활동이 추진 또는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발표는 최근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1) 모듈러 산업의 중요성과 환경변화 진단, 2) 건설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 3) 법/제도의 주요 이슈 및 문제점, 4) 모듈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개선과제를 소개하고,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최근 국회와 정부, 공기업 및 민간 참여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듈러 건축·주택산업 관련 애로사항 해소 및 발전방안에 대한 전략적 해법을 결론으로 제안하고자 한다.